

지구촌 양계뉴스

한국

충남 천안에서 7번째 고병원성 AI 발생

농림부는 지난 3월 6일 충남 천안시 동면 소재 씨오리 사육 농장에서 신고된 씨오리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3월 8일 고병원성 AI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은 씨오리 1만3천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3월 6일 갑자기 산란율이 떨어져 농장관리인이 인근 충남 가축위생연구소에 의심축 신고를 했던 곳으로, 4차 발생지(아산, 2006. 12. 11)에서 24km, 5차 발생지(천안, 2007. 1. 19)에서 2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발생지에서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 농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발생농장은 지난 1월 29일 전국 씨오리 농장 일제검사에서 AI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던 곳이다.

농림부와 충남도는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발생농장을 포함하여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류(오리 4농가 35천여마리)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조치와 함께 반경 10km이내 가금류와 달걀 등 생산물의 이동을 통제키로 했다.

- 농림부

◆ 제주, 타지방 병아리 반입 전면 금지

제주도는 3월 24일부터 타지방에서 생산되는 병아리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충남 천안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데 이어 경기 안성의 또 다른 오리농장에서도 AI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를 보임에 따라 병아리 반입금지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전국 병아리·오리 분양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입금지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3월 24일부터 타지방산 병아리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공·항만을 통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제주=뉴시스

◆ 전북 AI 발생지 병아리 입식 전면 허용

AI가 발생한 전북 양계 농가의 병아리 입식이 전면 허용돼 지난해 11월 22일 첫 AI 발생 후 4개월만에 전북지역 닭 사육이 완전 정상화됐다.

전북도는 지난 3월 20일 익산시 함열읍과 황등면, 김제시 공덕면 등 전북 지역 AI 발생 농장 3곳에 대한 병아리 시험 입식 결과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아 닭과 메추리 사육을 허용키로 했



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이들 농장 13개 계사에 10여마리씩 모두 140여마리의 병아리를 시험 입식하고 AI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조사해 왔다.

앞서 지난 1월 29일과 2월 3일 AI발생농장으로 부터 인근 500m~10km인 경계지역 내 사육농가에 대한 병아리 입식이 허용됐다.

- 전주=문화일보

◆ 식약청, '타미플루' 긴급안전성 대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타미플루 복용자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이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제약협회 등에 보급한다고 지난 3월 22일 밝혔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타미플루' 복용 후 10대 2명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하는 등 동제제를 복용한 10대들의 정신신경증상 부작용 발생이 잇따름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아직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경고하는 차원에서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타미플루' 사용을 삼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타미플루캡셀 75mg이 허가되어 있으며 작년 4월 동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이상반응' 항목에 '정신신경증상(의식장애, 이상행동, 섬망, 환각, 망상, 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한 바 있다.

또한 "이상이 관찰되면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와 "환자를 신중히 관찰하고 각각의 증상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했으며 지난 5일에는 식약청이 한국로슈에 동 품목과 관련된 안전성 정보 수집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금번 일본 후생노동성 긴급안전성 정보에 따른 상세조치내용과 외국 조치현황 등을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며 일본 후생노동성의 '타미플루'에 대한 긴급안전성 정보 내용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한 · 중 · 일

AI 등 인수공통전염병 협동연구 본격 착수

조류인플루엔자(AI)와 브루셀라증, 공수병(광견병) 등 3개 인수(人獸) 공통전염병의 발병 원인 규명과 백신 개발을 위한 협동연구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제2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수공통전염병 범부처 R&D 추진 전략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AI 등 3개 전염병의 발병 원인 규명과 백신 개발 등의 협동 연구를 본격 지원키로 하고 올해 2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최근 인수공통전염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감염 백신개발 등 해당

부문의 R&D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와 동물을 다루는 수의사가 상호 분리돼 효율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수공통전염병 R&D 협의회를 구성, 발병기전과 모의 백신개발 등의 연구에 나서는 한편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협동연구 체계를 구축해 인의(人醫)·수의(獸醫)간 공동연구 및 정보공유를 촉진할 계획이다.

- 서울=연합뉴스

EU

타미플루에 경고문 부착 지시

일본에서 정신착란 등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에 대해 EU가 투약 후 심각한 비정상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지시했다. 영국 BBC 인터넷 판에 따르면 EU 유럽약물관리국은 타미플루 복용안내문에 투약 중 경련, 의식저하, 비정상 행동, 환각, 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특히 아이들과 10대 청소년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밝히도록 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사이 일본에서는 6백만명이 타미플루를 복용했으며, 그 가운데 10대 2명이 투신자살 하는 등 4명이 숨지고 22건의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다.

- mbn

WHO

아세안과 첫 AI퇴치 가상훈련

인체에 치명적인 H5A1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역에 신속하게 장비와 인원을 파견해 초기에 이를 박멸하는 훈련이 처음으로 캄보디아에서 실시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4월 2일과 3일 캄보디아에서 AI 발생에 대한 가상 대처훈련을 갖는다고 지난 3월 27일 발표했다.

피터 코딩글리 WHO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필리핀에 있는 WHO 아시아태평양본부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일본의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에서 H5A1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이에 필요한 타미플루 등 관련 백신과 고글, 마스크 등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부터 프놈펜으로 이들 백신과 의료진, 장비 등을 신속하게 공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터 대변인은 “그러나 훈련은 실제로 장비를 이동하지는 않고 가상으로 진행되며 신속한 대응과 의사소통, 의사결정방법 등을 점검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WHO의 이러한 훈련은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최근 가장 발병이 많은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이뤄지는 것인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H5A1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281명, 그 중 169명이 사망했다.

- 하노이=연합뉴스



일본

독감약 '타미플루' 10대 처방 금지

일본에서 10대들이 감기약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가 타미플루 10대 처방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일본 타미플루 수입판매원 추가이(中外)제약의 소식통은 지난 3월 21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전날 ‘의사들에게 10대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라’는 비상지침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일본 전역의 의사들과 병원, 약국에 경고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지난 2월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 2명이 고층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으며 3월에는 12세 소년이 고층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 타미플루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다.

미국 식품의약품청은 타미플루의 부작용으로 정신 착란, 환각 등 정신병 증세를 100건 이상 보고 받았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지난 2005년 8월 29일과 지난해 7월 6일 사이에 일본 어린이들에게서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타미플루에 따른 청소년 부작용과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타미플루 제조업체인 스위스 제약사 로슈 홀딩 AG는 전날 웹사이트에 성명서를 게시하고 “일본과 미국의 부작용 사례로는 타미플

루와 정신병 증세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도쿄=AP/뉴시스

미국

AI대책 등에 관한 국제제휴 강화

조한스 미 농무장관은 지난 3월 14일 USDA와 FAO가 농업분야에서의 협조로 기술지원을 하기 위한 기본협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USDA는 만성적 기아, 세계적 만연이 우려되는 AI 등의 동식물의 질병, 농업생산 환경의 보전, 유전자원문제 및 재생가능연료의 수요확대 등 농업이 안고 있는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조한스 장관은 이번 공표에 즈음해 세계적 규모의 H5N1형 HPAI의 대책강화가 현재의 최우선 과제로 하는 동시에 “이번 합의는 광범위한 농업분야의 과제에 관한 쌍방의 부족 부분을 보완해 상승효과를 촉진시키고 더욱이 미국 내의 농업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한스 농무장관은 이날 미국이 HPAI의 국내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① 외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대책회의 개최 등의 국제적 조치 ② 철새 등 야조의 감시 ③ 부정수입의 검색 강화 등 가금 및 가금육 제품 등의 감시 ④ AI에 관한 조사연구 등 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

금까지 조취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USDA는 DOI 및 각 주 등과 제휴해 실시해온 야조의 감시강화에 대해 2006년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10만수 이상의 야조에서 샘플을 채취한 결과 H5N1형 LPAI의 감염을 6사례 확인했다.

USDA 등에서는 금년 4월 이후에도 철새 등 야조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것이고, 특히 작년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리스크가 높은 새의 종류 및 지역에서 샘플 채취의 초점을 맞춰 실시키로 했다.

- AW

◆ 트랜스지방 과다섭취, 심장병 위험 3배

트랜스지방을 과다섭취하면 심장병 위험이 3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의 프랭크 후 박사는 미국 심장학회(AHA) 학술지 '순환(Circulation)'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간호사건강조사(NHS)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3만2천826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적혈구 속의 트랜스지방 수치를 측정하고 6년 동안 지켜 본 결과 트랜스지방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심장병 발생률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후 박사는 트랜스지방 수치가 중간수준인 그룹은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심장병 발생률이 60% 높았다고 밝히고 이 결과는 심장병의 다른 위험요인들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적혈구는 수명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적혈

구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 수치는 장기간의 트랜스지방 평균섭취량을 나타낸다고 후 박사는 말했다.

후 박사는 실질적인 트랜스지방 섭취량을 추정하면 최상위 그룹이 하루 3.6g, 최하위 그룹이 2.6g 정도라고 밝혔다.

미국인의 하루 평균식단에는 5.8g의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는 것으로 식품의약국(FDA)은 추산하고 있다. 미국심장학회는 트랜스지방이 하루 칼로리 섭취량의 1%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트랜스지방은 포화지방보다 나빠 악성콜레스테롤인 저밀도지단백(LDL)을 증가시키고 양성콜레스테롤인 고밀도지단백(HDL)를 감소시켜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브라질

닭고기 中東 중심 수출 증가세 지속

세계 최대의 닭고기 생산·수출국가인 브라질의 수출 증가세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브라질 닭고기수출협회(Abef)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23만2천톤, 2억9천670만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물량은 16.76%, 액수로는 21.48%가 늘었다.

Abef는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 전체 닭고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물량은 5% 정도 증가한 285만톤, 수출액은 6.8% 증가한 34



억2천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아시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사이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량은 13만2천38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4.72%나 증가했으며, 수출액도 1억5천80만달러로 19.37%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량은 11만2천195톤으로 지난해보다 11.19%가 감소했으며, 수출액도 16.89% 떨어진 1억3천720만달러에 머물렀다.

- 상파울루=연합뉴스

중국

한국에 닭·오리고기 수입허용 요청

중국이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家禽肉)의 수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해 한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열리는 '제2차 한·중 검역검사협의체' 회의에서 '중국산 가금육 수입 허용'이 공식 의제 가운데 하나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지시로 3월초부터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중국산 닭고기 문제가 과거 마늘과 동이나 김치분쟁과 같은 무역보복 양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식품안전에 관련된 사항인 만큼 중국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국산 닭고기는 중국내 AI 발생으로 열처리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도 한국에서 AI가 발생하자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산 가금류와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서울신문, 문화신문

미얀마

AI 퇴치를 위해 보다 많은 지원 필요

미얀마는 최근에 발생한 AI를 빠른 시간내에 퇴치하기 위해 책임을 지고 노력 중이지만 이 질병 박멸을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UN FOOD 대변인이 발표했다.

FAO는 미얀마정권에 대해 강도있는 비판을 하는 미국을 포함, 여러 국가에서 미얀마에 AI 박멸을 위해 1,4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미얀마에 발생한 H5N1형의 AI 바이러스의 원인체가 무엇인지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FAO에서 발표한 바 있다.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하는 미국이 AI 박멸을 위해 50만 달러의 장비를 제공했으며, UNICEF와 다른 국제NGO에서는 AI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 아직 H5N1형에 의한 인체감염은 없다.

- 로이터

인도네시아

WHO와 AI 바이러스 샘플 공유 합의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 27일 세계보건기구(WHO)와 AI의 바이러스 샘플 공유에 전격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시티 파딜라 수파리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이날 WHO가 현 바이러스 샘플 공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올들어 공유를 중단했던) AI 바이러스 샘플을 즉시 WHO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WHO 양측의 합의는 지난 3월 26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자카르타에서 WHO 고위간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 보건관계자, 제약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AI 대책회의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WHO는 빈국에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 샘플 공유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인도네시아는 올 들어 AI 바이러스 샘플의 WHO 제공을 거부한 채 지난달 6일 미국 제약회사인 백스터에만 샘플을 독점 공급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백스터는 인도네시아가 독점 제공한 AI 바이러스 샘플로 백신을 개발하고, 인도네시아는 이 백신의 제조와 판매권을 갖게 된다.

수파리 장관은 그동안 “우리가 WHO에 보낸 샘플은 다시 제약사로 건네지고 이를 이용해 개

발한 백신을 우리는 비싼 값에 사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불공정한 처사이며 개선하지 않을 경우 샘플 공유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

이에 대해 WHO는 백신 개발과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바이러스 샘플 공유를 통한 유전자 정보의 교류가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 방콕=연합뉴스

인도

AI 발생국 가금류 수입 금지

인도는 AI가 발생한 모든 국가의 가금류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지난 3월 14일 밝혔다.

통상산업부는 성명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 칠면조 등은 물론 이들 가금류의 고기, 달걀, 날개 등이 모든 제품으로 만든 동물사료 등이 수입금지 대상”이라고 말했다.

가금류가 아닌 가축 중에는 살아있는 돼지와 돼지고기 등의 수입이 금지됐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AI가 보고돼 전국적으로 수 백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인도 정부는 그러나 6개월 후인 8월에 AI에서 ‘졸업’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03년 이래 AI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은 세계적으로 160명이 넘었지만 인도에서는 인간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다. 

- 뉴델리=연합뉴스